

수나무, 정부인나무, 계비나무의 은행나무



지정번호 서2-5

지정년도 1972

관리기관 서울

수령 528년

수고 24m

흉고둘레 7.3m



서울 중구 회현동1가 36-7

37° 33' 33.90" N

126° 58' 51.33" E

큰 도로에 인접한 보호수(서2-5) 은행나무는 도심의 빌딩 사이에서 수나무 1그루와 암나무 2그루가 한곳에 모여 자라고 있다. 은행나무는 나무나이가 1972년 지정 당시에 475년이었으므로 현재 528살이 된다. 나무높이는 24m, 가슴높이둘레는 730cm 정도이다. 은행나무가 있는 이곳은 조선 전기의 영의정 정광필(1462~1538) 일가의 집터이었다. 정광필은 어느 날 꿈에 신령이 나타나 집 앞 은행나무에 걸린 12개의 서대(종1품 이상의 관복에 착용하는 허리띠)를 보여주며 앞으로 이 가문에 12정승이 배출된다는 길운을 전하였다. 이후 400여 년 동안 이 명당 터에서 동래 정씨 집안의 12정승이 배출되었다. 이후 동래 정씨 집안의 여진賢 사람들이 이 근방에 모이면서 숲마을 이름도 회현會賢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 다른 전승 이야기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도끼로 이 은행나무를 베려고 했을 때 동네 노파가 생선을 주면서 말렸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 당시 도끼로 팬 상처가 뿌리 부분에 남아있다. 이후 은행나무는 마을의 염원을 기리는 귀한 신주가 되었다. 정씨 가문은 감사한 마음으로 수나무인 은행나무를 장가보내기로 하고 남쪽에 암나무 한그루를 심었다.

어느 날부터 부인나무가 마르기 시작하자 정씨 일가는 새 부인을 들이기로 하고 수나무 동쪽에 계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부인나무가 되살아났다. 그때부터 정부인나무와 계비나무가 서로 등을 돌린 채 자라게 되었다. 어느 대감은 계비의 존재가 자손의 교육에 좋지 않다고 여겨 계비나무를 베려고 벌목공을 데려왔다. 나무를 베기로 한 날 갑자기 정씨 일가의 장손이 배앓이를 하였다. 이것이 은행나무를 베도록 한 것 때문이라 생각하여 벌목공을 내보내니 장손의 병이 씻은 듯 나았다. 이때부터 제사를 지내면서 3그루의 은행나무에 똑같이 술을 따르고 절하는 풍습이 생겼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할아버지 나무에게 기원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부인나무에게 기원하며,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계비나무에게 인사를 하며 평안을 기원하였다. 중구청은 2012년부터 매년 10월에 회현동 은행나무 축제를 개최한다. 은행나무의 전설을 토대로 마을의 안녕과 염원을 기리고 인재 배출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는 행사이다. 지역 주민들의 무병장수와 평온무사를 빌기도 한다.

